

건강 칼럼

혈우병에 대한 이해 필요

4월 17일은 '세계 혈우인의 날'로 혈우병과 선천성 출혈 질환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1989년 세계혈우연맹에서 제정하였다. 올해 세계 혈우인의 날 슬로건은 '지식공유가 힘이다'로, 혈우병에 관한 지식 공유의 중요성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질병인 혈우병, 혈우병은 어떤 질병이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아들에게만 유전되는 질환? 혈우병은 성염색체 중 X 염색체를 통해 열성 유전이 되는 질환이다. 인간의 염색체는 44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로 구성이 되는데, 성염색체는 성별을 결정한다. 남자는 XY, 여자는 XX 형태인데, 아들의 경우 X 염색체는 어머니로부터, Y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된다. 딸은 각각의 X 염색체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하나씩 물려받는 것이다. 열성 유전은 특정 유전자가 변이한 쌍의 염색체에 모두 발생했을 때 질병이 발현하는 유전 형태를 가리킨다. 만약 한 쌍 중 하나에만 변이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정상이라면 보인자가 되는 것이다. X 염색체를 통해 열성 유전이 되는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남자가 만약 X 염색체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다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Y 염색체에는 이 유전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질병

이 발현하여 환자가 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보인자라면 아들에게 질병이 유전될 확률이 50%, 정상인 확률이 50%가 된다. 딸의 경우는 아버지가 정상이라는 가정 하에 보인자가 될 확률이 50%, 정상인 확률이 50%가 되는 것이다. ▲지혈이 잘 되지 않는 혈우병 혈우병은 피가 날 때 지혈 작용을 하는 12개의 주요 혈액응고인자 중 하나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따라서 혈우병 환자들은 작은 상처에도 피가 쉽게 나고 잘 멈추지 않는다. 유전성 혈우병의 경우 혈액응고인자를 생성하는 유전자에 변이가 발생하여 혈액응고인자가 만들어지지 않아 발생한다. 유전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후천적 혈우병의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가 항체로 인해 응고인자가 부족하게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암이나 자가면역질환과 관계가 있다. 유전성 혈우병은 흔하지 않은 병으로 남아 5,000명당 1명꼴로 발생

한다. 혈우병 A는 Ⅲ번 응고인자가 부족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전체 혈우병의 약 86%를 차지한다. 고전적 혈우병이라고 하면 혈우병 A를 지칭하는 것이다. 혈우병 B는 Ⅸ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으로 나머지 혈우병 환자의 대부분이다. Ⅲ 응고인자와 Ⅸ 응고인자의 수준에 따라 출혈의 정도가 비례해서 나타나는데, 중증은 정상 수치의 1% 미만일 경우이며 출혈이 잦고 관절이나 근육 내에 자연 출혈이 가능하며,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위에도 출혈이 저절로 발생할 수 있다. 중증도는 1~5% 수준으로 작은 손상에도 출혈이 심하며, 자연 출혈도 가능하다. 경증은 6~20% 수준으로 작은 수술이나 작은 외상 후에 출혈 경향을 보인다. 혈우병 환자의 출혈은 관절강 내 출혈이나 근육 같은 연부조직의 출혈이 문제인데, 연부조직 출혈 시 조직 안에 있는 신경, 혈관, 기도 등 생명과 연관된 중요한 구조물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치료가 필요하다.

▲혈우병은 어떻게 치료할까 혈우병 환자는 응고인자의 보충을 통해 치료한다. 과거에는 혈액응고인자가 있는 혈장 혹은 전혈을 사용하였고, 1970년대부터 혈장에서 추출한 농축 Ⅲ인자, 농축 Ⅸ인자를 투여하면서 효과적이었다. 잦은 혈액투여로 인해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나 HIV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유전자 재조합 제품을 생산하여 혈우병 치료가 진일보하였다. 또한 유전자 재조합 제품을 이용한 응고인자 유지 요법도 시행한다. 혈우병 A로 인한 출혈의 경우 항이노호르핀인 데스모프레신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출혈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출혈로 인한 합병증, 특히 혈관 질환은 이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공관절치환술 등의 정형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최근에는 완치를 위해 유전자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혈우병 A, B의 해당 유전자는 크기가 커서 아직은 실제 치료에 이용되는 것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이 설립되어 혈우병 환자에 대한 지원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으며, 혈우재단의원에서 혈우병 환우들을 진료하고, 유전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영득
건협 전북지부 건강증진의원 원장

사설

블라인드 채용 지켜지고 있는가

청년층을 붙잡아줄 정책이 절실하다. 그 정책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동안 공표했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그동안 장려돼왔던 블라인드 채용 말이다. 그 블라인드 채용이 말 뿐이라는 게 이번에 또다시 확인되었다. 블라인드 채용은 말 그대로 편견없이 능력 위주로 인재를 뽑는 것이다. 출신 지역을 따지지 않고, 졸업 학교를 따지지 않고 실력만 보고서 인재를 발탁하는 거 말이다. 그런데 아직도 현장에선 실무와는 상관없는 스펙을 따지고 있다. 여기 다시 지적하거니와 블라인드 채용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가외의 것을 따지는 것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할 수가 없다. 국민연금이 사무직 서류 전형에서 외국어 성적 우수자를 우대한다고 명시해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재고할 일이다. 혁신도시의 국민연금마저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서 벗어나 인재를 뽑으려 든다면 전북의 젊은 인재들은 그만큼 기회를 붙잡는 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며 지역을 떠나고 싶다고 투로하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 지자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

련해 분발해야 한다. 약간의 일자리 마련으로 신규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자못 뽐내는 듯이 말하지 말고 관용은 일자리 늘리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만 한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데 구태의연한 대책으로는 그 약발을 기대할 수가 없다. 미취업을 전국 1위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다. 전북도는 이 부끄러운 기록을 과연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전국 1위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 앞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북도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블라인드 채용이 도내에서도 막혀들지 않는다면 정말 곤란하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블라인드 채용에 모범을 보여야겠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겠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치보다 못한데 그나마 좁은문이 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전북 출신 청년들의 미취업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블라인드 채용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겠다.

전북도의 귀농 귀촌인 지원에 기대 크다

전북도의 귀농 귀촌인 지원 발표에 기대가 크다. 농가의 소득이 늘었다는 보도가 계속되는 연장선에서 나온 소식이기 때문이다. 도내 농가들의 소득이 늘었다는 것은 전북도의 삼락농정이 탄력을 받았다는 것일 터이다. 그래서 도지사가 예전에 도정 방향을 밝혔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올인하겠다는 농업 분야와 그 핵심 과제를 말한 것이 다시 생각나는 지금이다. 전북농정은 이번의 밝은 소식을 바탕으로 더욱 탄력을 받아야 한다. 분명히 그래서일 것이다. 최근 전북 지역에 30대 40대의 젊은 귀농 귀촌인들이 부쩍 많아졌다. 전국 대비 30대 귀농 귀촌인은 무려 56.2%에 달하고 40대도 20.2%로 달하고 있다. 이것은 전북의 농촌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전북도는 예전에 삼락농정의 성공을 위해 114개 사업에 135667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엄청난 규모라서 도내 농민들은 전북도의 삼락농정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열원했던 터이다. 우리 전북지역에는 많은 농가들이 있으므로 귀농 귀촌인의 정착

성공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이다. 두루 알고 있는대로 삼락농정의 목표는 전북도가 발표한 그대로이다. '보람 찾는 농민' '재깁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에 귀농 귀촌인들이 많이 온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전북도의 삼락농정은 앞으로도 도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여야 한다. 전북도의 삼락농정은 꾸준히 성공기도를 달려야 한다는 당부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이런저런 농정 구상을 밝히면서 농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므로 전북도가 삼락농정의 규모를 꾸준히 키워온 것은 잘한 일이다. 전북도는 삼락농정의 성공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한다. 귀농 귀촌인 많았던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 전북도는 삼락농정이 도정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으므로 농가에 실익되는 쪽으로 더욱 힘찬 행보를 보여야겠다. 그리고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귀농 귀촌인들이 우리 전북을 떠나지 않고 터전을 잡고 오래 살도록 해야만 한다.

독자제언

학교폭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 문제

2017년 7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집을 점령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유포하고,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다. 내용의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폭행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종류로는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등의 신체에 가하는 신체폭력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모욕, 협박하는 언어폭력이 있으며, 요즘에는 카카오톡 단체폭박을 만들고 초대하여 욕설을 하며 비방을 하는 사이버폭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주변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선생님 또는 지인에게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우선 알려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SPO(학교전담경찰관)에게 상담을 받거나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117센터에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 117Chat 어플을 통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빠르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은 한 사람의 학생의 가장 아픈답게 되어야 할 확장시절이 지옥으로 느끼고 평생 고통 받을 수 있는 큰 범죄이자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자신이 피해자로 피해를 본다면 지인, 선생님, 부모님, 경찰 등에게 알리고 이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용호전북지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한풀이 범죄 예방에 노력하자

'행복해 보여서', '웃음소리 때문에 화가 나' 등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화집에 타인을 살해하는 한풀이 범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언론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피의자의 행동 심리를 분석해 보면 각종 해체와 적대적 경쟁사회 등 개인적, 사회적 배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붕괴된 가정, 소외된 학교와 사회 속에서 일부 반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이 사소한 촉발 요인에 의해 폭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풀이 범죄를 예방하려면

사회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고, 생활속 치안망을 확립해야 한다. 반사회적 행동이상을 보이는 이들을 공중보건센터에 의뢰해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소자 관리 등 범죄교화 및 예방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단속이나 귀갓길 통보 등 기본적인 생활속 치안에 신경 쓰는 자세가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반항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풀이 식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진제원산지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장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